

“전주에서 전통문화 배우고 갑니다”

전통문화전당, 체험명소로
외국인들에게 각광받아
7월 한달간 800여명 방문
타 지역에 비해 월형 간직
시설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의 고유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체험명소로 외국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올 7월 한 달간 30개국 800여명의 외국인들이 전당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이들로, 피부색과 언어는 물론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와 직업도 다양하다.

이들은 전주가 여타 지역에 비해 한국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꼽았으며 전당은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홍보관(한문화관·전주문화관) 한



한국전통문화전당 조리체험실에서 비빔밥 체험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 외국인 교류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소를 짓고 있다.

지산업지원센터, 조리체험실(시루방), 공연장, 공방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주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전당을 찾는 외국인들은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검색은 물론 지인들로부터의 추천에 의해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

했다. 실제 지난 7월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2017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오감’ 공연을 보기 위해 중국 시안 ‘제8중학’의 학생과 교사 27명이 전당을 방문했다. 완산중·완산여고 관계자들의 소개로 한중교류체험 학습 차 6박7일 전주를 찾은

이들은 전통타악 공연 관람과 난타 체험, 홍보관 관람의 시간을 통해 한국과 전주 문화에 대해 배웠다.

그런가하면 입소문을 통해 찾는 경우도 있다. 같은 날 계절학기 문화교류 차원에서 카이스트 외국인 교류학생 84명이 전당을 방문하여 조리체험실(시루방)에서 손수 비빔밥을 만들고 시식한 뒤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한지뜨기, 한지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에도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21개국 재외동포 이통과 청소년 34명은 7일간의 여정으로 전당에서 풍물과 관소리, 탈춤 등의 교육을 받고 도자기·비빔밥·한지만들기 체험, 전통예절 교육 등 모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돌아갔다.

오태수 원장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당의 기능과 역할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갖고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전주가 좋은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회관 상반기 대출 1위 ‘PC진단 무작정 따라하기’

2위 김제동 ‘그럴 때 있으시죠?’
3위는 황한영 ‘그대에게 봄을’

PC진단 문제해결 무작정 따라하기(길벗출판사)가 올해 상반기 전북교육문화회관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이 밝힌 올해 상반기 성인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실용도서인 PC진단 문제해결 무작정 따라하기(길벗출판, 이원순)다.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문제 원인을 직접 진단해 수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2위는 방승인 김제동 씨의 ‘그럴 때 있으시죠?’(나무의 마음)다. 김제동과 나, 우리들의 이야기가 부제로 달린 이 책은 아들 때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믿음에 담은 공감 에세이다. 3위는 소설가 황한영의 ‘그대에게 봄을’(스칼렛출판)이다.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온 젊은 기업체 사장의 결혼이야기다.

4위는 박용현의 ‘책은 도끼다’(북하우스). 책 들여다 보기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저자의 강독회를 책을 정리한 것으로, 인문학으로 강고하는 박용현이 자신만의 독법으로 창의력과 감성을 깨운 책들을 소개한다. 5위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현대문학). 오래된 잡화점을 배경으로 기묘한 편지를 주고받는다라는 설정을 통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해은 기자

군산 예당 썸머페스티벌 ‘인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산예술의전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야외공연 ‘썸머페스티벌’이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재미와 감동으로 성황리에 펼쳐지며 군산의 한여름 밤을 시원하게 수놓고 있다.

예당이 마련한 썸머페스티벌은 군산에서 활동 중인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4회 차로 진행되며 지난 7월 28일에는 국악인들과 함께 비나리, 민요, 판굿 등으로 신명난 한판을 선보였으며, 29일에는 마술, 마임, 버블쇼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를 꾸며 1,5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4일 열리는 세 번째 썸머페스티벌은 열정적인 B-Boy 댄스팀과 지난해 페스티벌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뮤지컬 댄스팀이 파워풀한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 다음 날인 5일에는 50인조 시민 오케스트라단이 펼쳐는 아름다운 선율들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에 지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공연 관람 기회가 있는 이번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장 현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만인의 연인’ 마릴린 먼로... 그녀에 대한 모든 것

전북영화연구회, 사망 55주기 맞아 대표작 상영... 오늘부터 6일까지

1950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마릴린 먼로(1926년 6월 1일~1962년 8월 5일)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술, 패션, 문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감을 주며 회자되고 있다. 서양고전영화 감상회 모임인 전북영화연구회(회장 장세균)는 마릴린 먼로의 사망 55주기를 맞아 그녀의 대표 작품들을 모아 상영하는 영화제를 갖는다.

오는 4~6일 전주 성지월드시네마에서 열리는 영화제에선 지하철역 환풍구 위에서 흘날리는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던 장면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7년 만의 외출(1955)을 비롯해 그녀의 연기가 돋보이는 ‘버스 정류장’, ‘댄스와 뮤직이 흥겨운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등 대표작 6편을 감상할 수 있다.

4일 오프닝 영화로는 마릴린 먼로의 남편인 미국 최고의 극작가 아서윌러가 각본을 쓰고 존 휴스턴 감독이 연출한 ‘부적응자’가, 이튿날엔 ‘돌아오지 않는 강’ ‘버스 정류장’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이, 6일에는 ‘몽키 비즈니스’ ‘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다’가 무료 상영된다.

장세균 회장은 “지난해 독일영화제 빔 벤더스 감독전에 이어 올해는 올드 팬들을 위한 월드시네마 시리즈를 기획했다면서, 이번 영화제는 20세기 최고의 할리우드 스타 마릴린 먼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선별해 상영한다”고 말했다.

영화제를 기획한 백학기 영화감독은 “마릴린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소장 DVD뿐 아니라 서울 정계천 및 미국 할리우드에서 공수해온 것들도 있다며, 이번 영화제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기타노 다케시 초기작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8월 ‘주말의 명화’로 코미디언·배우·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초기작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기쿠지로의 여름’을 엮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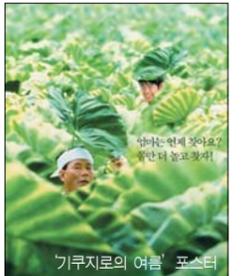
1·2주차 상영작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는 청소년부로 일하는 시계투우가 우연히 스프레이통에서 주운 서핑보드를 통해 서핑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청각장애를 지닌 시계투우와 그를 사랑하는 소녀 그리고 바다를 축으로 한없이 조용하고 답답하게 전개된다. 복잡한 인물관계나 딱히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지 않지만 묵묵히 서핑을 하기 위해 오가는 남녀의 결혼과 시선, 행동들만으로 마음에 위안과 감동을 선사한다.

이어 19일부터는 3·4주차 상영작으로 ‘기쿠지로의 여름’을 상영한다. 영화는 여름방학을 맞은 마사오가 멀리 일하러 간 엄마의 주소를 우연히 발견한 후 이웃집 아줌마의 도움으로 그녀의 남편 기쿠지로와 함께 엄마를 찾는 여정길에 오르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여행 중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절없이 살던 ‘기쿠지로’가 믿음직한 어른으로 변화는 전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유쾌하게 그려진다.

푸른 영화의 색깔과 반전 매력에 가진 ‘기쿠지로’의 캐릭터 그리고 삽입곡 ‘summer’를 비롯한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다. /정해은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